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2.(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효숙	☎044-300-7173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특성화고 2곳 · 마이스터고 0곳… 세종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넓혀야"

– 세종시 특성화고 진학률 4.60%, 전국 평균의 3분의 1… 지역 내 교육 기회 확대 촉구 –

– 미래산업 특화 직업계고 신설 및 기존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어진동·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미래산업 성장에 걸맞은 직업교육 기반 확충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기가 세종사업장에 4조 2,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 중학교 졸업생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4.60%로 전국 평균 14.04%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근 대전은 직업계고가 12개교, 충북 25개교, 충남 33개교 있지만 세종은 특성화고 2개교뿐이며 마이스터고는 한 곳도 없다.

전공 선택의 폭도 좁다. 세종시 특성화고 재학생의 68.8%가 가사·실업계열에 집중됐으며 공업계열은 31.2%로 전국 평균 44.3%보다 낮은 실정이다.

반면 '2026년도 세종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의 절반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보였고, 70.7%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7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서울반도체고는 4.73대 1, 충북지역은 평균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미래기술 교육 수요에 대응해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세종시의 직업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첨단기술이 적용될 국가시범도시에 미래산업 특화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하고,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와 공동캠퍼스를 연계한 교육·실습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편과 공동실습캠퍼스 설치를 검토하고, 세종시·교육청·행복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외로 나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를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며, "정작 세종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면, 진로 탐색은 일회성 경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시설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인재에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세종에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산업 특화 직업계고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